

'사간판 인경본' 집에 모시세요

해인사, 인경불사한 '묘법연화경' 등 경전 11종 24권 보급

법보종찰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사간판 장경판의 인경본을 가정에도 모실 수 있게 됐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고려각판을 보존하기 위해 해인사 사간판 인경불사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인경을 마친 인경본을 사찰은 물론 기관의 개인에게도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인사가 지난해 9월부터 인경불사를 시작해 책으로 만든 인경본은 <묘법연화경> <인전보감> <경덕전등록> <능가경> <심부주> <대승능가경> <고봉화상 선요> <시왕생칠경> <대문(大文)금강경> <80화엄경 변상도(주본)> <60화엄경 변상도(진본)> 등 11종류 경전 24권이다.

이중 <인전보감>(국보 206-9) <시왕생칠경>(국보 206-10, 보물 734-3), <대문 금강경>(국보 206-20), <80화엄경 변상도>(국보 206-14)는 모두 국보로 지정된 고려각판을 인경한 것으로 그 소장 가치가 매우 크다. 다른 인경본도 모두 조선시대에 제작된 각판들을 인경한 것으로 인경본이 갖는 학술적·사지학적 가치가 높다. 특히 <심부주>는 <능가경> 관련 주석서인데 경제목에 대한 설명자재도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며, <대문 금강경>은 글자체가 크고 특이해 그 가치가 남다르다. 또, <경덕전등록>은 절집의 족보와 같은 것으로 학술적·사지학적 가치가

높으며, <시왕생칠경>은 다른 종류의 책으로 각각 한 권씩 모두 두 권이 있는데 요즘은 사라진 왕생극락사상을 대표하는 고려시대의 경전으로 희귀본이다.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경판은 국간판과 사간판으로 나뉜다. 국간판은 국가가 대장도감을 설치해 왕의 이름으로 제작한 경판으로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

'인천보감' 등 국보포함 소장 가치 높아 고려시대 불교신앙 한눈에 알 수 있어 '복원자료 확보 차원, 마지막 인경될 것'

년에 걸쳐 만든 고려팔만대장경판(81258장, 국보 제32회)을 말하며 사간판은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목판을 말한다. 사간판은 지금까지 국간판의 명성에 가려져 그 가치가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고려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대에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에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권이 현존하고 있다. 28종이 국보206호로, 26종이 보물 734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간행기

록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불교신앙의 경향과 서지학적 변화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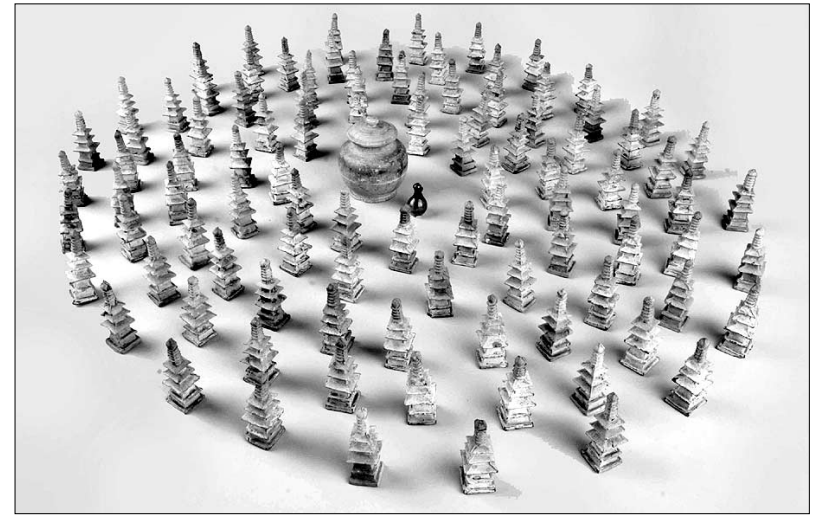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사간판은 지금까지 전체가 완질로 인경돼 보관된 곳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현대 인쇄기술이 들어온 이후 인경된 예도 없다. 따라서 해인사는 사간판의 복원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인경불사를 시작했다.

당시 해인사는 1년여의 기간동안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사간판을 모두 인경 해 인경본 10권을 만들어 완질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현재 인경률은 20%정도에 머물러 있다. 오랜 세월 속에 경판의 마모가 심화되어 인경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종이남비도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게다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글자 하나하나를 교정하고 검토해 나가는 작업은 무엇보다 더디고 힘들다는 것이 해인사의 설명. 따라서 인경 불사를 지속하기 위한 예산마련 차원에서 인경본을 보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연구원 남일 스님은 "지금까지 모든 사간판의 인경을 시도한 적은 없었으며, 복원자료 확보를 위한 이번 인경을 끝으로 더 이상 인경본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해인사 소장 사간판 인경본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가슴 아시겠다." (055)934-3095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종교적 열정 공예기술에 감탄

봉화 서동리 사리장엄구 특별전, 11월말까지

불교예술과 신앙의 결정체로 '탑 속의 보물'이라 불리는 사리 장엄구가 대구에서 특별 전시된다. 10월 19일~11월 말 국립대구박물관 작은갤러리에서 열리는 '소탑공양과 사리장엄-봉화 서동리 사리구' 특별전이 그것이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김경환)은 해솔관 개관 기념으로 개최한 특별전에서 사리장엄 유물을 전시한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춘양중학교 교정에 남아있는 9세기대의 2기의 동, 서삼층 석탑 중 동쪽 석탑 첫 번째 탑신석 내부의 사리공에서 1963년 발견된 99기의 소탑(사진)과 곱들로 만든 사리호 사리 3

립(粒)이 들어있는 녹색 유리사리병을 비롯한 140여점의 사리장엄구가 전시된다.

전시는 사리신앙의 기원과 전래, 법사리로서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법사리신앙과 소탑공양, 봉화 서동리 사리구, 사리장엄 공양품의 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이중 봉화 서동리 사리구는 9세기에 봉안됐지만 보존상태가 뛰어나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사상에 따라 탑 내에 봉안한 99기의 소탑은 현재 서동리와 해인사 김상탑, 양양선림원지 사리구만이 온전히 남아있다. (053)768-6051

배지선 기자

풍성한 가을 산사마다 축제 물결

은해사 개산대제, 불국사 영산재, 부석사 화엄축제 등

가을을 맞아 지역사찰 곳곳에서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축제가 풍성히 열리고 있다. 팔공산 은해사(주지 법타)가 1197년 개산대제를 10월 29일 봉행하고,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주지 우하)가 같은 날 오후2시~밤 10시 백혈병 어린이돕기 가을음악회를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한다.

서기 809년 신라 헌덕왕 원년에 해철 국사가 창건한 은해사의 개산대제는 28일 오후3시부도전에서 봉행되는 해철국사와 연대조사 차례제로 시작해 29일에는 지장전 지장보살 봉안식과 개산대제법요식, 경북도립국악단이 펼치는 산사음악회, 만동불사점 등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054)335-3318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가을음악회는 현철, 송대관, 배승기 등 인기연예인이 출연

해 TBC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며, 회주 우학스님의 작품전, 수지전, 다도, 페이스메이킹, 가훈 써주기, 컵등만들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053) 474-8228

경주 불국사(주지 성태)는 10월 14일 영산대제를 봉행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한마당잔치를 열었으며 영주 부석사(주지 큰일)는 14일부터 16일까지 '원융무애'를 주제로 제4회 부석사화엄축제를 개최해 조사한다례와 의상사상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청도 적전사(주지 덕원)도 개산 1342주년을 기념하며, 10월 22일 은행나무 별빛축제를 개최했다. 수령 800년 된 은행나무(천년기념물 402호) 아래서 열린 음악회는 김태곤의 웰빙뮤직콘서트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배지선 기자

화합과 상생의 등반대회

동화사·천주교 대구대교구청

"대자연과 더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불교계와 가톨릭이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최영수 대주교가 팔공산 중턱에서 땀을 식히며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함께 팔공산을 오른 소감을 털어 놓았다.

허운 스님은 "산행을 같이 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등지거나 반복하지 않는다"며 웃었다.



배지선 기자

10월 18일 대구 팔공산에서는 동화사 개산대제의 일환으로 스님과 신부님들이 함께 산행을 하는 화해와 상생의 등반대회가 열렸다.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50여 사부대중과, 대구대교구청 최영수 대주교를 비롯한 신부 10여 명이 동참했다.

오전 10시 동화사 봉황문에서 만난 두 종교 지도자들은 유리광전(동일대불전)에서 차담을 나눈 뒤 땀물까지 2시간에 걸친 산행을 하고, 국수 공양을 하면서 친목을 다졌다.

사불산 채석장 개발 '없던 일'

문경시, 불허가 처분

문경 사불산 채석장 개발사업에 대한 문경시의 불허가 처분이 10월 16일 내려졌다. 문경시(시장 신현규)는 "채석지역이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고 사할과 주민 등 7천여 명이 반대서명을 하는 등 반대여론이 높아 행정심판 결정과 관계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지 599호 A5면 참조)

이로써 문경산업은 지난 4월 문경시로 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후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으나 시로부터 행정심판을 다시 받지 못했으며, 그동안 채석장 허가 반대를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문경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온 철산스님과 인근 주민 등 2명은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배지선 기자

고승 스님 부도탑 제막식 봉행

팔공산 파계사(주지 성우)는 前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고승 스님의 열반 3주기를 맞아 10월 17일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개막식에는 파계사 회주 도원, 동화사 조실 진제, 동화사 주지 허운, 직지사 주지 성웅, 파계사 주지 성우, 파계사 율원장 철우,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을 비롯한 고승 문도회 스님과 재가불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홍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이)이 지난 10월 11일 강원도 홍천에 신규 설립된 홍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했다.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에 위치한 홍천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900여평의 부지에 연건평 500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로, 운영지원 사람은 홍천 수타사로 결정됐으며 내년 1월 1일에 개관한다. 배지선 기자

2007학년도 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포교사회) - 불교문화재학	30명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10명

1. 모집과정 및 인원

2.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 박사과정은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취득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인정된 타 종단 승려
※ 타 종파라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 2006. 10.23(월) ~ 11.10(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2) 원서 접수 : 2006. 10.30(월) ~ 11.10(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3) 전 형 일 : 2006. 11. 16(목) 13 : 00(박사과정) / 14:00(석사과정)
4) 합격자 발표 : 2006. 11.20(월)
5) 등록 기간 : 2006. 11.22(수) ~ 11.30(목)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1) 장소 : 면접 고사실 - 대학본부 2층 세미나실
2) 기간 : 2006. 11. 16.(목) 13:00 (박사과정) / 14:00 (석사과정)

5.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3)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4)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본)	1부
5) 수계확인서 (3개월 이내) [외국수계일 기입 요]	1부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 (타 종단 스님)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cm)
※ 대학/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07. 2.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무료
2) 전형료 : 박사과정 50,000원 / 석사과정 40,000원

7. 사정원칙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허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 사정회에서 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전화 : 031)980-7864(내선:7864) / FAX : 031)980-7863
• 특전 : 1) 조계종 소속 승려(구족계수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2) 각종 교내·외 장학금 지급
3) 전공별 대학원 연구실 제공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통도사 영산전 벽화 한·일·대만 공동 학술 연구

한국·일본·대만이 공동으로 통도사 영산전 벽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 하고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확대·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함.

연구기간 2005년1월 ~ 2007년12월 (약3년간)

연구기관 한국 : 통도사성보박물관
일본 : 元興寺文化財研究所
대만 : 東海大學

공동지원 한국 :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리상호저축은행
일본 : トヨタ財団 The Toyota Foundation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055) 382-1001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지은·성보박물관장 범하